



글로벌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법인 설립

글로벌(대표 김치웅)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 글로벌러시아법인(현지법인명 : GLOVIS RUS, LLC)을 설립하고 운영을 개시한다고 9월1일 밝혔다.

이번에 설립된 러시아법인은 2011년 양산 예정인 현대자동차 러시아 공장의 부품조달에서부터 완성차 물류까지 물류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현대자동차 연산 15만대 규모의 생산에 대응하는 조달물류를 위한 통합물류센터(Consolidation Center)와 완성차 출고전 검사를 위한 VPC (Vehicle Processing Center)를 운영할 계획이다.

러시아법인은 현대·기아자동차의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수출차량을 현지 판매딜러들에게까지 운송하는 현지 내륙운송도 담당할 예정이며 향후 러시아를 비롯한 CIS(독립국가연합) 전역을 커버하는 글로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은 이번 러시아법인의 통합물류센터와 VPC 건설 등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대차 러시아공장의 양산이 시작되는 2011년부터는 연 4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대차 러시아공장 가동이전에는 한국에서 수출하는 차량의 물류네트워크를 혁신해 기존 수입항인 핀란드의 코트카(KOTKA)항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항으로 변경해 수출차량의 내륙운송비를 120만 유로 이상 획기적으로 절감, 러시아에서의 현대차 판매경쟁력에도 많은 기여를 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미국 및 유럽, 중국, 인도 등 14개의 현지법인과 7개의 지사, 사무소 등 총 21개의 해외 물류거점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남미 브라질에도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등 글로벌 SCM(Supply Chain Management)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3조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회사는 국내 최대 물류기업으로서 세계 유수의 물류기업과 본격적인 경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 물류거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해운

이진방 회장 글로벌리더상 수상



이진방 대한해운 회장이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국인사관리학회에서 후원하는 '2008 글로벌 리더상' 글로벌 시장경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 회장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대한해운을 비약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굴지의 국가대표 해운기업으로 발돋움 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선주협회 회장으로서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상호협력을 일구어내 세계 해운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글로벌 경영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삼성물산에서 부장, 삼성코닝에서 이사를 역임하는 등 삼성에서만 20년을 근무한 이 회장은 샐러리맨으로서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한 것들이 지금의 뛰어난 경영활동 및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씨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또한 '인재제일론'을 핵심가치로 품고 있는 이 회장은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실의 활로를 찾고 인재고용을 통한 기업의 영속적인 성장·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내외 인재채용 확대 및 후학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 세계 6위인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위상을 2010년까지 5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전략수립과 더불어 국적 해운선사들의 의기투합을 일구어내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10개 부문에서 9개 업체와 3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은행 강정원 은행장 등 총 1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대한해운이 28년 연속 임금단체협상에서 무분규 타결을 달성했다. 대한해운 그룹은 8월21일 'KLC VISION 2010' 달성을 위한 노사한마음 공동선언문을 김창식 사장과 주치문 노동조합위원장이 공동 발표하였으며, 200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이번의 공동 선언문 선포는 창사 40주년을 맞이하는 전통과 역사가 있는 기업으로써, 글로벌 일류 해운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 노사문화'를 구축하여 가족 친화적인 대한해운의 전통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결과이다.

대한해운 노동조합은 공동 선언문의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08년도 단체협상을 무교섭 타결하고 임금인상에 관한 전권을 회사에 일임하기로 하였으며, 금년을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의 무교섭 원년으로 삼기로 하였다. 이에 김창식 사장은 노조측에게 업계 최고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인상과 더불어 복지제도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선우에스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5배 증가

선우ST(대표 정인현)가 올해 상반기 113억 3501

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전년도 상반기 23억원보다 거의 5배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선우ST가 최근 발표한 2008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선우ST는 올해 상반기 1714억 767만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동기 대비 76.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해운매출은 1291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623억원 보다 2배이상 늘어났다.

매출액이 크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무려 395.6% 증가한 113억 3501만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선우ST는 올해 상반기 외화환산손실로 104억원, 통화옵션평가손실로 225억원 등 영업외 비용으로 457억원이나 발생하면서 189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선우ST는 올해초 해운시황이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COA영업에서 큰 수익을 얻지 못했고 선박수리비가 발생한데다가 선박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돼 시황대비 영업성과가 기대에 못미쳤다고 밝혔다. 다만 자사선 위주의 운항 및 대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지속적인 건화물선 시황상승에 따른 벌크 용선 영업 강화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STX팬오션

상반기 영업이익 4,380억원 달성

STX팬오션이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STX팬오션은 최근 올해 2분기 매출 2조 3,714억원, 영업이익 1,626억원, 당기순이익 1,699억원을 각각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110%, 당기순이익은 63% 각각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순이익면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1분기 실적을 합친 상반기 순이익은 4,46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94%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연간 순이익 규모(4,310억)를 이미 넘어섰다.

STX팬오션이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4년 STX그룹편입 이후 전개된 벌크시항 호조와 함께 시의적절한 선대투자, 신규사업 확대, IT 인프라개선 등의 활동이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특히 건화물선 시황을 나타내는 BDI지수가 올해 상반기 동안 전년 대비 61% 증가한 것에 비해 매출은 107%, 영업이익 136%, 순이익은 194%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STX팬오션은 건화물선 시황 호조를 뛰어넘는 건실한 성장을 이루었다.

STX팬오션은 이같은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건화물 시황이 중국 올림픽과 여름 비수기로 인해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4분기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중국의 원자재 수입효과, 원자재 수요지와 공급지의 불일치에 따른 톤마일(Tonne-mile)증가, 신조선 인도 지연 및 주문취소로 인해 벌크시황이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STX팬오션 관계자는 “70여척의 사선을 포함해 500여척의 대규모 선대를 운용하는 글로벌 선사 의 면모를 이미 갖췄다”고 말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상반기에만 13척의 선박을 발주하고, 탱커 운용선대를 14척으로 확대하는 등 기존 벌크선의 탱커, 컨테이너선 분야의 경쟁력도 크게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S칼텍스

허동수 회장, 전남 명예도민되다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이 전라남도 명예도민이 되었다. 허동수 회장은 9월4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라남도청 정약용실에서 박준영 지사로부터 ‘전라남도 명예도

민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지난 1997년 ‘나의문 화유산답사기’를 통해 남도문화를 널리 알린 유홍준 교수 이후 11년만이다.

허동수 회장이 전라남도로부터 명예도민패를 받은 것은 GS칼텍스 공장이 위치한 여수지역을 중심으로 수조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GS칼텍스는 작년 8월 완공한 제2중질유 분해시설에 1조5천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기간 중 연인원 220만 명 규모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약 3조원을 투입하는 제3중질유 분해시설 공사에서도 연인원 30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허동수 회장은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 과정에서 풍부한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오만 등 중동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각종 국제 행사 및 해외출장 시에 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유치 성공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GS칼텍스는 GS칼텍스재단을 통해 장학금 지원 및 교육 기자재 지원, 독서노인 지원 활동 등, 지역과 밀착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회 공헌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명예도민패 수여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며 대규모 투자를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GS칼텍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동수 회장은 “이번 수상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라기 보다 GS칼텍스 전 임직원들이 수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여수산업단지의 대표 기업으로서 에너지 산업 발전에 더욱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천경해운

부산-군산-연운항 컨항로 개설

천경해운(대표 김지수)이 9월부터 부산-군산-연운항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개설했다. 천경해운은 지난 7월28일 전라북도, 군산시, 현대택배 등과 부산-군산-연운항간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오는 9월 동항로에 320TUE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이날 MOU 체결식에는 천경해운(주) 김지수 사장을 비롯해 문동신 군산시장, 이경옥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이래범 군산시의회 의장 류영하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박양일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현대택배(주)의 김영훈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천경해운은 이번 MOU체결에 따라 9월초 320TEU급 컨테이너선 1척을 투입해 부산-군산-연운항을 연결하는 주 1항차 서비스를 개시했다. 군산에는 아웃바운드 1회, 인바운드 1회등 주 2항차 기항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천경해운은 기존 주 1항차로 서비스하고 있는 인천-군산-부산-일본 항로에 이어 군산에서만 주 3회 기항하게 됐다.

지난 5월부터 5개월여간 부산-연운항-청도간 컨테이너항로를 운항하다가 중단한 바 있는 천경해운은 사실상 이번 부산-연운항간 항로를 재개하며 군산항을 기항지로 추가한 것이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등 지자체는 현대택배가 연운항에서 반가공 형태로 수입되는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의 물량과 향후 GM대우자동차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CKD 물량이 연간 3만~5만 TEU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자체는 천경해운이 군산-연운항간 주1항차 항

로를 개설함에 따라 북미, 유럽, 동남아 등과 20여 개 항로, 월200여편의 선박이 입출항하는 연운항을 환적항으로 이용한 월드와이드 서비스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선하주, 포워드,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번 항로 개설도 이에 따른 쾌거로 분석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원조례에 따라 군산-연운항항로를 신규 개설한 천경해운에 총 1억원의 항로 안정화 지원금을 제공하며 처리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에 따라 일정부분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한진

부산항에 자가특송통관장 개설

종합물류기업 한진(대표 이원영)이 부산 용당 세관 창고에 부산항 최초의 자가특송통관장(660㎡ 규모)을 개설하고, 한-일간 해상 국제택배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진은 부산 거점의 특송 통관장을 개장함에 따라, 일본에서 반입되는 물품을 부산에서도 처리하게 됐다.

이번 자가특송관장의 개설로 부산, 영남지역 고객 및 화주들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일본발 한국행 국제택배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또 일본에서 반입되는 특송 화물을 인천공항에서만 처리했던 예전과 다르게 부산에서 곧바로 처리할 수 있어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진의 한-일간 해상 국제택배서비스는 항공운송에 비해 최대 60%이상 운송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운송기간이 동일하거나, 하루 정도 차이나 주요 이용고객인 교민, 유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진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부산항 내 직영 통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인천공항세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 운송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발 일본행 국제택배 등 지속적인 상품 개발을 통해 부산지역 수출입업체들의 기업 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진해운

로테르담 전용터미널 개장



한진해운(대표 박정원/www.hanjin.com)은 지난 9월5일 네덜란드 로테르담(Rotterdam)에서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 '유로막스 터미널(Euromax Terminal)'의 개장식을 가졌다.

동 터미널은 현지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회사인 이씨티(ECT, Europe Container Terminal)와, 얼라이언스 선사인 중국 코스코 그룹(Cosco Group), 일본 케이라인(K-Line), 대만 양밍라인(YANG MING LINE)과 합작으로 개발되었으며, 로테르담항의 마스블락테(Maasvlakte)-1지역에 제 1단계 4개 선석을 시작으로 4단계까지 터미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1단계 터미널은 230만 TEU의 물량 처리능력을, 4단계 완료 이후에는 560만 TEU의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마스(Maas)강 하구에 위치한 동 터미널은 뛰어난 지리적 접근성과 항만내 철도

연계 운송시스템(On Dock Rail System), 최신 무인 자동화 시스템과 첨단 하이브리드 장비를 보유, 저비용 고효율은 물론 친환경 최첨단 시설이다.

유럽 최대의 무역항인 로테르담항은 베네룩스, 영국, 스칸디나비아 및 독일 서북부 내륙 지역까지 아우르는 허브 포트로서, 금번 전용 터미널 개장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피더 서비스 망 확보를 통해 고객 편의 제고가 기대된다.

한진해운 김영민 부사장은 “북유럽 허브 포트인 로테르담항에 전용터미널을 공동 운영하게 되어 성장하는 북유럽 지역의 터미널 운영 안정화, 지선 서비스 강화 및 물류비용 절감, 정시성 제고에 따른 고객 서비스 향상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2006년부터 운영중인 벨기에 앤트워프 터미널을 포함 전세계 12개 전용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주 잭슨빌, 유럽 알헤시라스, 동남아시아 베트남, 중국지역 등에 신규 터미널 건설 및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상선

4개 해외 현지법인 신설

현대상선(대표이사 김성만)이 잇따라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밀착영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상선은 유럽의 오스트리아에 현지법인 'Hyundai Merchant Marine (Austria) GmbH' 를 설립하고 8월4일부터 영업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4번째 설립한 해외법인이다.

현대상선은 기존 해외 대리점이나 연락사무소를 법인으로 바꿔 영업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작업을 계속하여왔다.

세계 100여 곳에 해외 지사를 둔 현대상선은 2007년 7월 베트남, 이태리 법인설립에 이어, 올해

3월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 및 두바이(U.A.E.), 4월에 시드니(호주)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프라하(체코), 부다페스트(헝가리), 멜버른, 브리즈번(호주)등에 현지법인 산하의 지점을 운영하며 틈새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영업망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현지법인화에 힘쓰는 것은 △투입선박이 대형화 됨에 따라 그 규모에 버금가는 물량 확보를 위해 영업지역을 다변화하는 한편 △고유가 등으로 원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내륙물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컨테이너박스 등 기기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현지에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러시아, 중동, 동구권 등 고성장 시장에서 펼쳐고 있는 이러한 해외 현지화 전략은 최근 현대상선이 잇달아 개설한 신규항로의 서비스지역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올해 초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동지역의 항로를 대폭 확대하며 시장 선점에 나선 데 이어 최근에는 호주, 북인도, 서지중해 및 흑해, 홍해 등 신승시장에서 다수의 항로를 신설 및 개편했다.

특히, 오스트리아법인은 연간 15%이상 증가하고 있는 동구권역 물량을 흡수하고 유럽 중심지역에서의 내륙연계 서비스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여 비용절감 및 현지 대형화주와의 밀착영업을 도모하게 된다. 러시아는 연 20%이상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현대상선은 2006년 이래 아시아-유럽항로에 대형 선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면서, 선박량 증가에 따른 영업력 확대를 위해 러시아 전체 물동량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영업 거점을 마련했다.

두바이 및 호주 역시 올해 4월부터 중동지역 주요 항로에 4,700TEU급 대형선 5척을 투입하고 오세

아니아 지역에 신규항로를 증편하면서 영업력 강화와 비용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기존의 대리점 체제를 개편하여 법인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은 주요 지역의 물류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현지 대형 화주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영업력 강화에 따른 비용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김종태 사장 취임

인천항만공사(IPA) 제2대 사장으로 선임된 김종태 사장(61)이 8월8일 오전 11시 인천시 중구 신흥동 IPA 사옥 2층 대회의실에서 한준규 항만위원장과 해운항만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 IPA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집무에 들어갔다.

신임 김종태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인천항이 새롭게 도약하는 이 시기에 인천항 발전의 조타수인 항만공사 사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시대적인 사명감까지 느끼고 있다”며 “인천항이 환황해권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의 중심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종태 사장은 인천중-제물포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거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영국 웨일즈대학원에서 해운경제학 과정을 수료했다. 제1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76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사무관으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종태 사장은 해운물류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을 거쳐 국토해양부(구 해양수산부)에서 기획관리실장까지 역임한 자타가 공인하는 해운항만 전문가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민간 경영인으로 변신해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 부사장과



항만물류 IT기업인 싸이버로지텍 부회장 등을 역임한 뒤 초대 서정호 사장의 뒤를 인천항만공사 2대 사장에 취임하게 됐다.

특히 김종태 신임 사장은 해운항만 선진 본고장인 영국대사관에서 6년여에 걸쳐 해무관으로 근무하면서 해운항만 업무에 대한 국제적인 감각을 익혀 항만공사 CEO로서 필수적인 글로벌 마인드를 갖췄고, 공직을 떠난 이후에는 민간 기업 경영자로 변신해 민간 경영마인드를 몸소 체득해 왔다.

여기에 인천중학교와 제물포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천과의 특별한 인연 때문에 일찌감치 인천항의 발전을 이끌 최고의 적임자로 꼽혀 왔다.

평택항만공사

2008 평택항 중국설명회

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가 주관하는 2008 평택항 중국 설명회가 9월8일 연운항을 시작으로 9월10일 샤먼에서도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행사는 평택항의 입지여건과 개발계획, 통관지원정책 등을 설명하고, 현지 선사, 물류기업, 화주 등 다양한 항만 이용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설명회에 참석한 중국측 물류기업인들이 평택항에 대한 세부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는 등 평택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번 행사의 눈에 띄는 성과는 중국 연운항시 항구집단 및 샤먼시 항물관리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항만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MOU 체결이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평택항의 물동량 증가는 물론 중국과의 활발한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양병관 사장은 국내 항만 중 최고의 물동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평택항이 이번 중국 설명회를 통해 평택항의 위상 확보 및 환

황해권 물류중심항만으로 성장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엘넷

중국 현지 물류기업 자문계약 체결

물류 IT 전문기업 케이엘넷(대표 박정천)은 중국 현지 물류기업인 북명운업유한공사에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프로세스 혁신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컨설팅을 맡기로 하고 4억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중국 산동성에 영업기반을 가지고 있는 종합물류기업인 북명운업이 택배와 국제물류, 운송, 보관 등 물류업종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기존의 프로세스를 글로벌 표준으로 개선하고 이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하에서 이뤄졌다.

케이엘넷의 박정천 사장은 “이번 계약은 중국 현지 시장을 감안해 볼 때 단순한 시스템 구축이나 장비납품이 아닌 단일규모의 정보화컨설팅 사업으로서 규모가 큰 프로젝트”라고 밝히고, “우리나라에서 쌓은 다년간의 물류정보화 및 솔루션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북명운업이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케이엘넷은 이번 자문계약을 통해 본격적인 해외 수출의 물꼬를 트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고 있어 하반기 해외 수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한국선급

베트남 한국유학생 장학증서 수여

한국선급(회장 오공균, KR)은 9월2일 '한국선급-베트남 한국유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한국에



유학 중인 베트남 대학(원)생 10명에게 1인당 250만원씩 총 2500만원을 전달했다.

해사산업 인재 육성 차원에서 동 선급이 주관한 이번 수여식은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오공군 KR 회장, 베트남 대사관 웬테홍록 서기관 및 목포해양대학 이창희 교수를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장학금을 수여받는 베트남 유학생들은 목포해양대, 부산대, 서울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등 5개 대학에서 총장의 추천을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오공군 회장은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을 이어주는 성숙한 리더들로 성장하여 양국은 물론 세계 해사산업을 함께 이끌고 발전시켜주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피력했다.

또한 웬테홍록 서기관은 “오늘 베트남 독립 63주년 기념일에 이 같은 우정의 지원을 받게 되어 뜻 깊다”면서 “오늘의 지원을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 이들이 가진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양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베트남의 조선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여 한국 일본 EU 및 중국에 이어 5번째로 큰 조선산업 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2015년까지 세계 4대 조선국으로 발돋움하리라는 전망이다.

국내 유일의 국제적 선박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은

재한 중국유학생 후원을 비롯하여 글로벌 인재 발굴 및 육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장학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선급은 국제적 선박검사기관으로서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고 조선훘운 및 해양에 관한 기술진흥을 목적으로 1960년 6월 민법 제 32조에 의거 설립된 단체이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광양항 컨부두 개장 10주년 행사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장 10주년 행사가 김춘선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이상면 전라남도 정부 부지사, 광양항 관련 유관기관장과 주요고객 및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광양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순천광양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9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광양 월드마린센터 및 컨테이너부두 일원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는 10주년 기념식, 항만체험행사, 고객초청 간담회, 항만가족 체육대회 등 고객, 시민, 항만가족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9월5일 월드마린센터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는 광양항 이용 모든 선사가 참여하여 광양항의 랜드마크인 월드마린센터에 사기를 높이 계양하는 행사와 그동안 광양항 발전에 기여한 고객에게 증정하는 Best Partner 시상식이 열렸다.



선사, 화주 및 포워더, 운영사 부문으로 구분, 광양항 이용 물동량을 기준으로 선정된 Best Partner에는 선사부문에 머스크라인, 한진해운, 현대상선, APL, 화주 및 포워더 부문에 GM대우, 한국노스케스코그, 삼성전자, LG화학, 금호타이어, 범한 판토스, 운영사 부문에는 대한통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항만 평화유지 및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으로 광양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양항 항만항운노조, 여수광양 물류협회,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컨공단, 터미널 노사 대표가 참여한 '광양항 항만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식도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특히, 기념식에는 광양항의 희망찬 미래를 '비전선포'를 통해 알리고, 새로운 도약에 대한 광양항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날 발표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물류서비스 항만'으로 광양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객지향, 가치창출, 친환경 항만 구축을 핵심 가치로 실천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최장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과거 10년이 성장기반을 다진 준비기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힘찬 도약의 시기가 될 것이다"고 말하며, "현재 해운물류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항만이 처한 어려움을 타하기 보다는 광양항이 갖춘 최적의 항만 여건과 그동안 구축한 완벽한 항만시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배후물류단지 등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나가며 광양항의 실질적인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해양대학교

제3회 한·일해양건축디자인워크숍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부는 일본 니혼대학교 해양건축공학과와 공동주최로 2008 제3회 한·일 해양건축 디자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본 해양건축 디자인 워크숍은 8월16일부터 8월21일까지 본교 해양공간건축학부 설계스튜디오에서 양국의 지도교수 4명, 일본 니혼대학교 학생 11명, 본학부 학생 11명, 강원대학교 학생 2명, 진행도우미 등 총30여명이 참여했다.

해양건축 디자인워크숍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도교수님과 부산남항수산물 도매시장부지와 주변의 일자방파제의 연계 활용방안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양 대학의 우호 증진과 젊음과 낭만을 공유하는 늦여름의 새로운 추억을 갖게 될 것이다.

해양공간건축학부는 지난 1999년 일본 니혼대학교 해양건축공학과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이래 2004년에는 니혼대학교 이공학부와 본교 해양과학기술대학과 공과대학과 교류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매년 해양건축학술심포지엄과 해양건축디자인 워크숍을 격년제로 개최해 왔으며 2007년에는 니혼대학 동경캠퍼스에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원장에 강종희씨 선임

국내 유일의 해운항만수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



해양수산개발원(KMI) 제6대 원장에 강중희 박사가 선임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8월29일 이사회를 열어 강중희 원장대행을 KMI 6대 원장으로 선출했다. 강중희 신

임원장은 9월1일 오전 10시에 취임식을 갖고 6대 원장으로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강 신임원장은 "해운물류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KMI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 신임원장은 서울대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울산해운, 범양상선, 삼미해운 등 해운업계에서 근무하면서 현장 노하우를 쌓아왔고 이를 토대로 지난 1984년부터 KMI에서 연구활동을 해오고 있다.

강 신임원장은 또 해양수산부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해상왕 장보고 연구회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해사중재인, 한국가스공사 LNG선 발주 자문위원, 건설교통부 국가교통조정실무위원회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쳐왔으며 「해운 영어」, 「해운경영론 I」, 「해양수산백서」, 「21세기 글로벌 해운물류」, 「21세기 해운·물류혁명에 대비한 현대 해운·물류 이해」, 「해운을 통해 바라본 물류중심화 비전」, 「21세기 대한민국 선택 해양강국 비전」등의 저서와 수많은 연구 논문·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외국인유학생 독도 순방행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의 요청으로 부산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독도 순방을 위해 한반도호의 출항식을 9월1일 오후 2시 부산감만시민부두에서 가졌다.

이번 출항은 최근 간교한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와



일본의 농간에 의하여 실효적으로 한국이 소유한 독도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독도가 움직일 수 없는 한국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재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독도 투어를 통하여 독도가 한국령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한반도호에는 독도 순방을 위해 재부외국인 유학생 49명을 비롯 내국인 41명 등 총 90명이 한반도호에 승선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항해 중 선상 강의를 통해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외국인에게 홍보도 병행하였다.

한국해양대학교 김영구 석좌교수의 “국제법상으로 본 독도”와 부산외국어대학교 김문길 교수의 “한국고유 영토로서 독도영유권”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다.

한국해운조합

전략기획실 신설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은 9월1일 '감사혁신타'를 폐지하는 대신 '전략기획실'을 신설, 경영기획실 산하에 있던 '기획홍보팀' 업무를 이관하고 경영지원실 밑에 '선원관리팀'을 신설했다.

또 '1급' 지부였던 여수지부를 '1급갑'으로 승격시키고 기존 '관리과, 업무과, 터미널과' 등을 '팀'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여수지부장에는 문한영



인천지부장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해운조합은 대규모 승진 인사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승진] △부산지부 공제실장 장수익(1급을→1급갑) △인천지부장 정현태(1급을→1급갑) △인천지부 업무팀장 박용형(2급→1급을) △목포지부 관리팀장 정성준(2급→1급을) △제주지부장 장영태(2급→1급을)

[전보] △전략기획실장 이경호 △공제사업실장 김진석 △부산지부 공제실장 장수익 △부산지부장 정기두 △인천지부장 정현태 △여수지부장 문한영 △제주지부장 장영태 △포항지부장 김종열 △경영지원실 경영지원1팀 김재환 △부산지부 관리팀장 현일혁 △부산지부 터미널팀장 김형록 △목포지부 관리팀장 정성준 △목포지부 업무팀장 박중열 △여수지부 관리팀장 심양진 △여수지부 업무팀장 강성준 △여수지부 터미널팀장 윤희훈

해양환경관리공단

제1회 해양보호구역 전국대회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용우)은 8월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강화도에 위치한 '바다의 별 청소년수련관'에서 제1회 해양보호구역(MPA)전국대회(국토해양부 주최, 해양환경관리공단 주관)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전국대회는 정부의 해양보호구역 관리정책의 홍보 및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성과의 우수사례 소개를 통한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 김원민 해양환경정책관, 17개 지방자치단체, 3개 지방해양항만청, NGO, 지역주민 등 해양보호구역 전문가 100여명이 참가해 뜻 깊은 자리를 만들었다.

이날 전국대회에서는 국토해양부 신재영 사무관

의 '국내 해양보호구역 정책'등 전문가의 특강과 무안·부안·순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사례발표가 이어졌고, 무안군이 최우수 해양보호구역관리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또한,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앉아서 토론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갯벌체험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는 계기도 가졌다.

이용우 이사장은 “이번 전국대회를 계기로 해양보호구역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2009년에는 해양보호구역 전담 관리기구(MPA센터)를 공단 내에 설치해 국내 해양보호구역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항회

장학금 1550만원을 전달

전 해양수산부, 전 해운항만청, 국토해양부 퇴직 직원의 상조단체인 해항회(회장 이항규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난 9월 3일 2008년도 장학금으로 선발된 31명에게 장학금 1550만원을 전달했다.

해항회는 매년 회원자녀와 국토해양부 직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해항회는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등학생 11명, 대학생 510명에게 총 2억 297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